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은행

유럽 은행 2Q 실적: 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 재확인

- 유럽의 주요 5개 은행 (Banco Santander, Unicredit, BBVA, ING, Barclays)들은 양호한 2Q26 실적을 발표.
- ECB 금리 인상에 따른 NIM 상승이 이자이익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총당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고, 일부 은행은 CIB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누렸음.
- Unicredit은 공개매수 결과 독일 Commerzbank 지분 47.6%를 확보한 가운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WHAT'S THE STORY?

유럽 주요 은행 2Q 실적 컨센서스 상회 – 서프라이즈의 지속: 유럽 주요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2Q 실적을 발표.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Banco Santander, Unicredit, BBVA, ING, Barclays)의 합산 기준 2Q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유사한 가운데 (+1.1%), 이익은 3.5%, 그리고 EPS는 4.4% 상회. 매출 성장률은 9.4% y-y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인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6.8% y-y 증가세 시현. 다만, 전분기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

NII (순이자이익) 성장 – 대출과 NIM 모두 견조한 회복세 시현: 은행들의 2Q NII는 3.8% q-q, 12.3% y-y의 견조한 개선세 시현. 은행 전반적으로 대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ECB 금리 인상 및 단기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대다수 은행이 전년도 익대비 NIM 개선세를 시현한 것이 주요.

자본비율 전분기와 유사 – 주주 환원 강화 기조 유지: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와 유사 (+1bp q-q)한 가운데, 주주환원 강화 기조는 지속. 실제로 구체적인 주주환원 규모를 공표한 ING의 주주환원율은 131.8%를 기록. 즉, 은행들은 연초 주주환원 강화 가이드를 제시한 가운데, 26년 중 ROE 및 CET-1 비율 고려 시 이의 이행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

다만, 은행별 일부 온도차도 확인: ING는 CET-1 비율 13%를 넘어서는 초과 자본과 관련해서 1) 수익성 있는 성장, 2) M&A, 3) 주주환원 순으로 자사주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전략을 시사. 한편, Unicredit은 M&A를 앞두고 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25년 이익 기반 자사주 매입 취소 가능성을 시사. 다만, 26~30년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주주환원율 80% (배당 50%, 자사주 30%) 방침은 재확인.

26년 실적 개선 컨센서스 – 견조한 실적 개선세 지속 시사: 26년 은행 실적 컨센서스는 견조한 성장을 시사. 부문별로는 1) 매출 성장률은 6.6%로 전년 1.4%대비 가시적인 반등을 보일 전망이고, 2)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0.4%로 견조할 전망이며, 3) EPS 증가율 또한 11.3%로 견조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2Q 실적은 이러한 실적전망 컨센서스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다음 페이지에 계속)

유럽 주요 은행 2Q 실적 컨센서스 소폭 상회 – Top line 성장 기반 이익 개선

유럽 주요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2Q 실적을 발표.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Banco Santander, Unicredit, BBVA, ING, Barclays)의 합산 기준 2Q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유사한 가운데 (+1.1%), 이익은 3.5%, 그리고 EPS는 4.4% 상회. 매출 성장률은 9.4% y-y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인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6.8% y-y 증가세 시현. 다만, 전분기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

은행별 매출액 vs 컨센서스

(백만 유로)	매출액	컨센서스	차이 (%)
Banco Santander	15,707	15,659	0.3
Unicredit	6,521	6,504	0.3
BBVA	10,506	10,382	1.2
ING	6,284	6,106	2.9
Barclays	9,626	9,458	1.8
합계	48,644	48,109	1.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순이익 vs 컨센서스

(백만 유로)	순이익	컨센서스	차이 (%)
Banco Santander	3,518	3,332	5.6
Unicredit	2,954	2,843	3.9
BBVA	3,062	2,949	3.8
ING	1,947	1,885	3.3
Barclays	2,888	2,877	0.4
합계	14,369	13,885	3.5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EPS vs 컨센서스

(유로)	EPS	컨센서스	차이 (%)
Banco Santander	0.23	0.23	0.0
Unicredit	1.94	1.86	4.4
BBVA	0.54	0.51	5.7
ING	0.68	0.64	6.7
Barclays	0.18	0.18	(1.8)
합계	3.57	3.42	4.4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매출액

(백만 유로)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Banco Santander	15,670	15,135	16,026	15,537	15,473	15,267	16,113	15,140	15,707	3.7	1.5
Unicredit	6,328	6,142	6,002	6,550	6,127	6,167	5,687	6,873	6,521	(5.1)	6.4
BBVA	9,227	8,716	9,320	9,324	8,710	9,102	9,795	10,652	10,506	(1.4)	20.6
ING	5,716	5,909	5,407	5,637	5,702	5,898	5,797	5,823	6,284	7.9	10.2
Barclays	7,413	7,749	8,366	9,228	8,463	8,270	8,087	9,401	9,626	2.4	13.7
합계	44,354	43,651	45,121	46,276	44,475	44,704	45,479	47,889	48,644	1.6	9.4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당기순이익

(백만 유로)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Banco Santander	3,207	3,250	3,265	3,402	3,431	3,504	3,764	5,455	3,518	(35.5)	2.5
Unicredit	2,679	2,513	1,969	2,771	3,344	2,664	2,244	3,264	2,954	(9.5)	(11.7)
BBVA	2,794	2,627	2,433	2,698	2,749	2,531	2,533	2,989	3,062	2.4	11.4
ING	1,780	1,880	1,154	1,455	1,675	1,787	1,410	1,556	1,947	25.1	16.2
Barclays	1,744	2,150	1,433	2,509	2,250	1,976	1,660	2,506	2,888	15.3	28.4
합계	12,204	12,420	10,254	12,835	13,449	12,462	11,611	15,770	14,369	(8.9)	6.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1. NII (순이자이익) 성장 – 대출과 NIM 모두 견조한 회복세 시현

은행들의 2Q NII는 3.8% q-q, 12.3% y-y의 견조한 개선세 시현. 은행 전반적으로 대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ECB 금리 인상 및 단기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대다수 은행이 전년동기대비 NIM 개선세를 시현한 것이 주효.

은행별 순이자이익

(백만 유로)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Banco Santander	10,470	11,316	12,116	10,709	10,973	10,436	10,188	11,109	11,504	3.6	4.8
Unicredit	3,683	3,715	3,742	3,790	3,778	3,616	3,914	3,995	4,367	9.3	15.6
BBVA	6,481	5,868	6,406	6,398	6,208	6,640	7,034	7,537	7,627	1.2	22.9
ING	3,842	3,791	3,680	3,643	3,571	3,705	3,948	4,057	4,166	2.7	16.7
Barclays	3,582	3,915	4,205	4,210	4,127	4,322	4,267	4,304	4,527	5.2	9.7
합계	28,058	28,605	30,149	28,750	28,657	28,719	29,351	31,002	32,191	3.8	12.3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일부 은행은 높은 대출 성장률 시현 – M&A, CIB 부문 효과

Banco Santander는 이번 분기 영국 TSB 은행 인수와 환율 영향으로 대출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두 영향을 제외할 경우, 유기적인 대출 성장률은 5% 수준으로 언급.

BBVA의 경우 대출 평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CIB 부문에 기인. 실제로 동사가 제공한 CIB 부문 대출 성장률은 52.5% y-y로 나타남. CIB 부문 제외 대출 성장률은 17~18% 수준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은 터키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여파에 기인. 참고로, 동사의 주요 영업 지역인 스페인과 멕시코 대출 성장률은 각각 7.4% 및 9.9% 기록.

은행별 대출 평잔 추이

(십억 유로)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Banco Santander	911.7	933.5	937.3	1,005.0	922.8	949.6	960.0	989.7	1,042.5	5.3	13.0
Unicredit	434.0	430.9	418.4	424.3	433.2	435.9	433.5	433.5	433.5	0.0	0.1
BBVA	311.7	354.8	306.1	340.6	307.3	363.1	359.5	415.6	473.4	13.9	54.1
ING	678.1	701.3	651.0	721.1	720.7	716.2	674.1	756.6	773.8	2.3	7.4
Barclays	399.5	399.2	414.5	419.4	417.8	426.5	430.0	438.6	444.8	1.4	6.5
합계	2,735.0	2,819.7	2,727.2	2,910.4	2,801.7	2,891.3	2,857.1	3,034.0	3,168.1	4.4	13.1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NIM 개선 – ECB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금리 중심 상승 효과

은행들의 NIM은 대체로 개선세를 시현. 이는 2Q 들어 단기 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며 자산금리 Re-pricing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 참고로 ECB는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하반기에도 NIM 개선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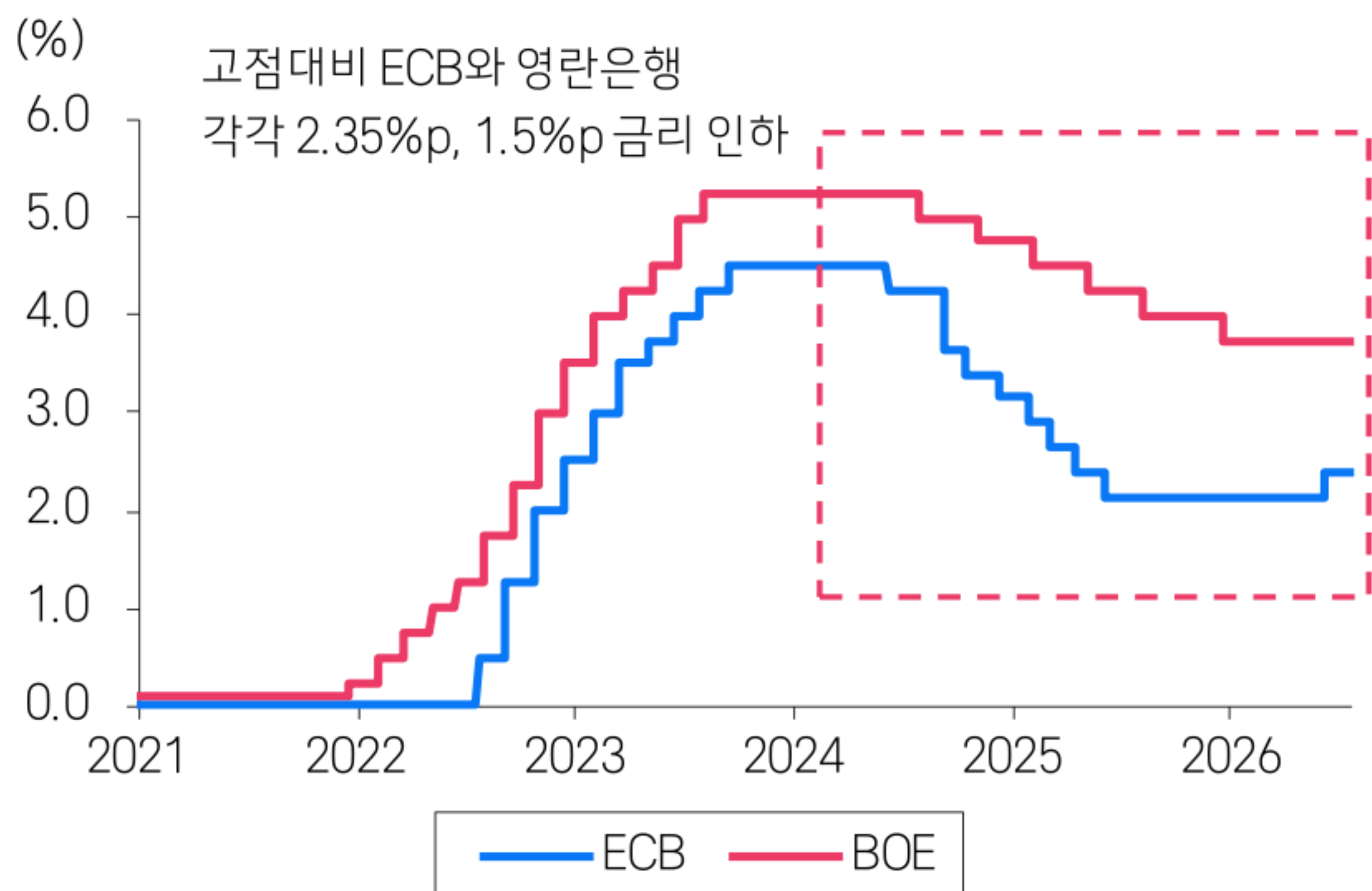
한편, BBVA는 큰 폭의 NIM 하락을 시현. 다만, 이는 터키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마진이 얇은 CIB부문의 대출이 52% y-y 증가한 것에 기인.

은행별 NIM 추이

(%)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bps)	YoY (bps)
Banco Santander	2.62	2.83	3.01	2.56	2.65	2.53	2.43	2.58	2.53	(5)	(11)
Unicredit	1.99	1.98	2.00	2.04	1.92	1.75	1.89	1.91	2.04	13	12
BBVA	3.40	3.22	3.82	3.64	3.15	3.27	3.65	3.68	3.48	(20)	33
ING	1.58	1.54	1.48	1.44	1.38	1.41	1.50	1.49	1.48	(2)	10
Barclays	1.35	1.47	1.60	1.59	1.54	1.62	1.62	1.61	1.64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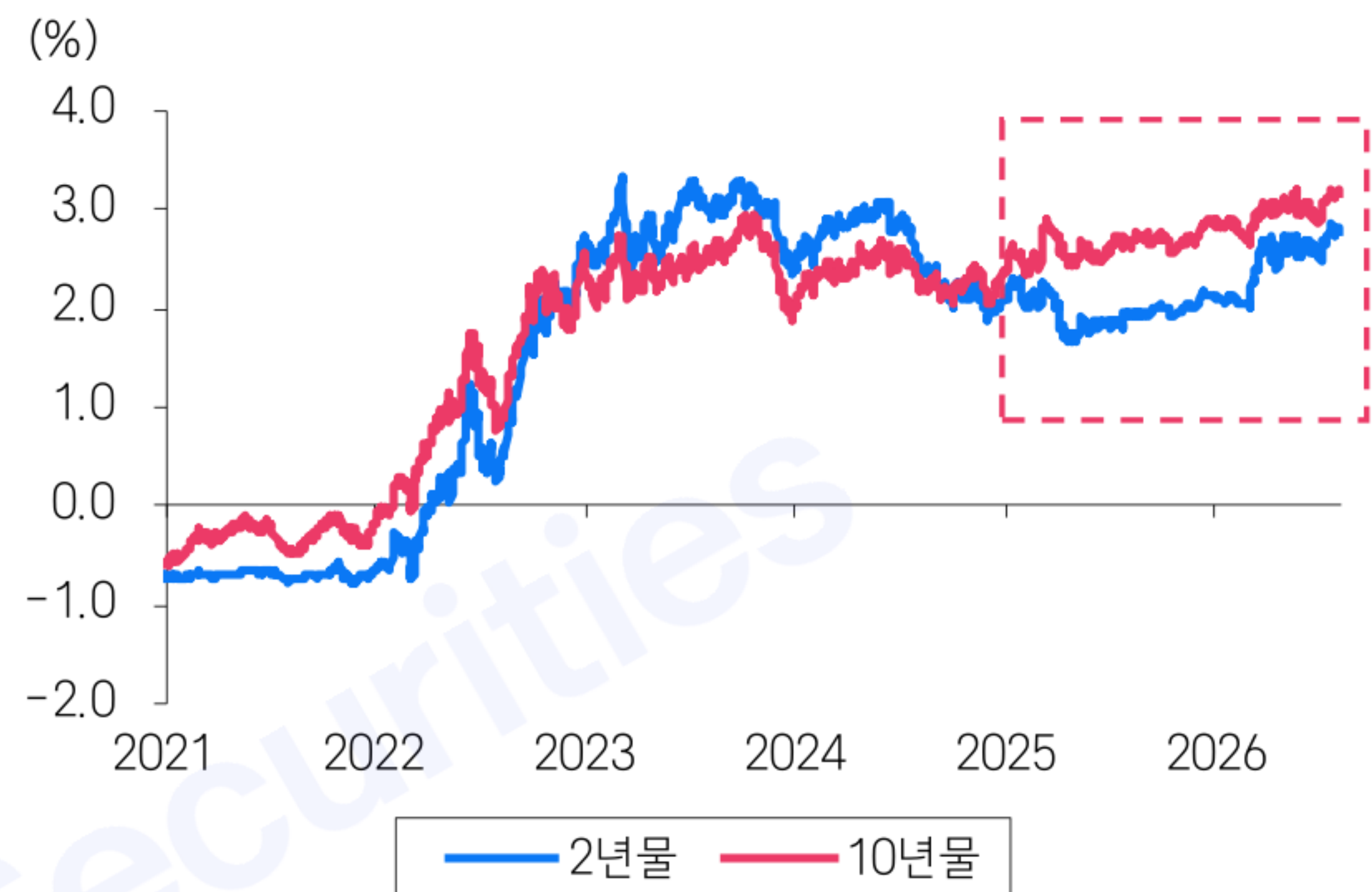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ECB vs 영란 은행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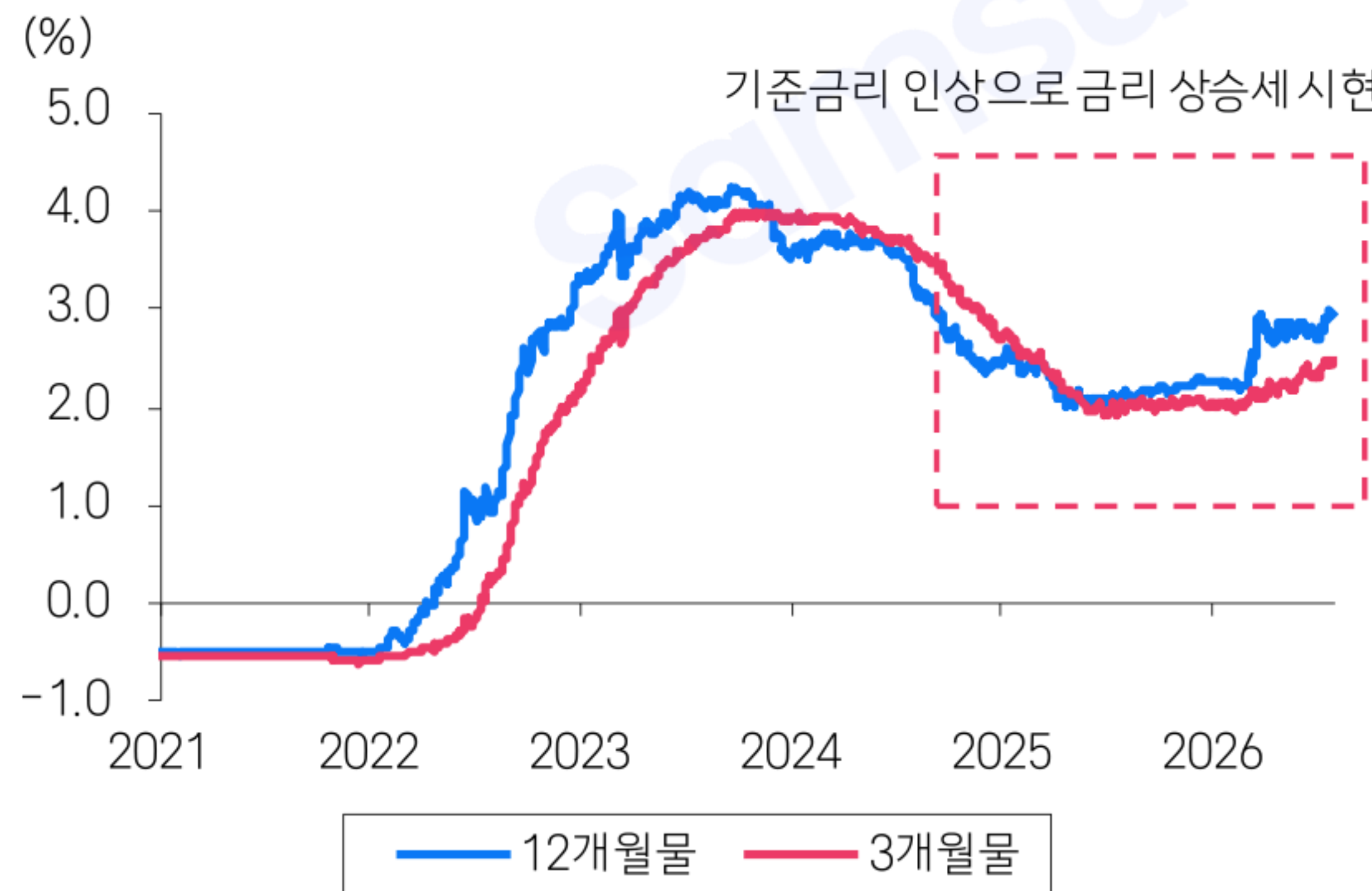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년 vs 10년 만기 유로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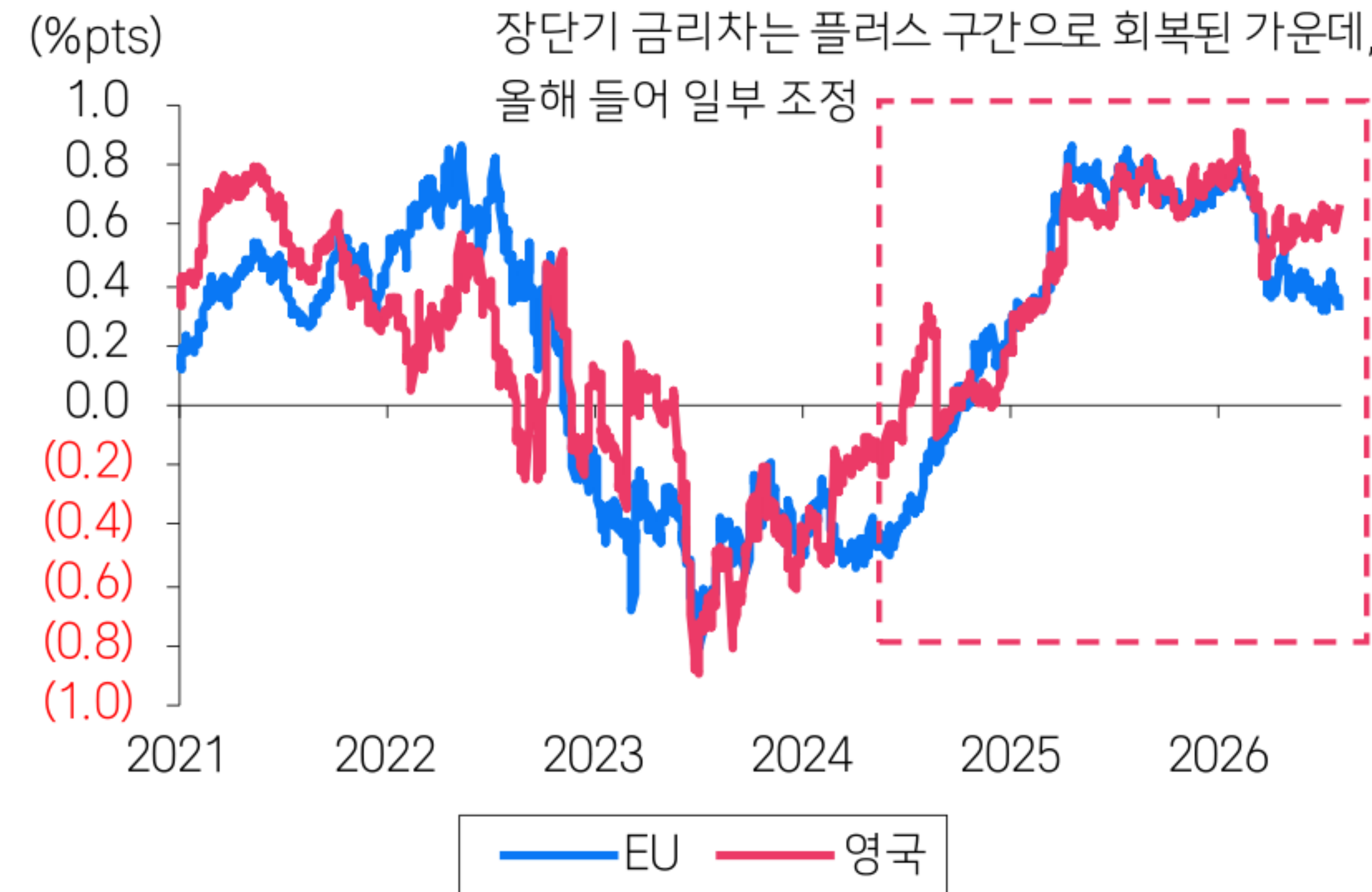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Euribor 12개월 vs 3개월물 금리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2. 대손충당금 – 전반적으로 개선세

은행들의 2Q Credit cost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 5개 은행 합산 기준 총당금 적립액은 대출 성장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4.9% q-q, +6.8% y-y), 이에 Credit cost는 대체적으로 전분기대비 하락세를 시현 (CCR 산출 시 분모 증가 효과가 일부 기여).

은행별 대손 충당금 추이

(백만 유로)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Banco Santander	3,141	2,947	3,120	3,077	3,447	2,848	3,066	3,198	3,373	5.5	(2.1)
Unicredit	15	165	357	83	109	113	356	185	192	3.8	76.1
BBVA	1,479	1,440	1,466	1,385	1,377	1,567	1,745	1,820	1,677	(7.9)	21.8
ING	300	336	299	313	299	326	366	346	279	(19.4)	(6.7)
Barclays	450	443	854	770	552	729	611	948	659	(30.5)	19.4
합계	5,385	5,331	6,096	5,628	5,784	5,583	6,144	6,497	6,180	(4.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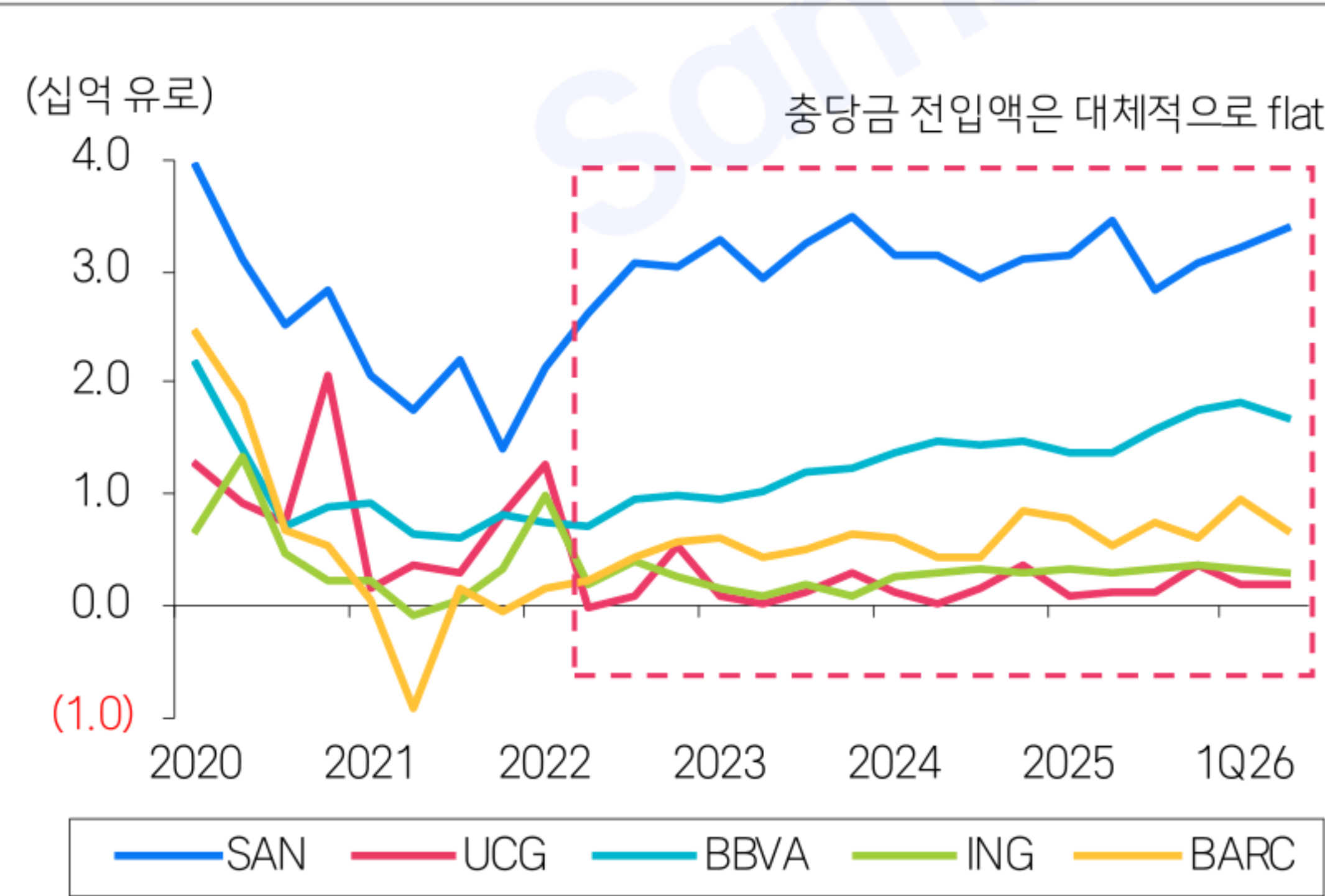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CR 추이

(%)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bp)	YoY (bp)
Banco Santander	1.21	1.18	1.15	1.12	1.13	1.13	1.14	1.14	1.15	1.0	2.0
Unicredit	0.01	0.15	0.34	0.08	0.10	0.10	0.33	0.17	0.17	0.0	7.0
BBVA	1.42	1.42	1.43	1.30	1.33	1.41	1.52	1.54	1.43	(11.0)	10.0
ING	0.18	0.20	0.18	0.18	0.17	0.19	0.20	0.19	0.15	(4.0)	(2.0)
Barclays	0.38	0.37	0.66	0.61	0.44	0.57	0.48	0.74	0.51	(23.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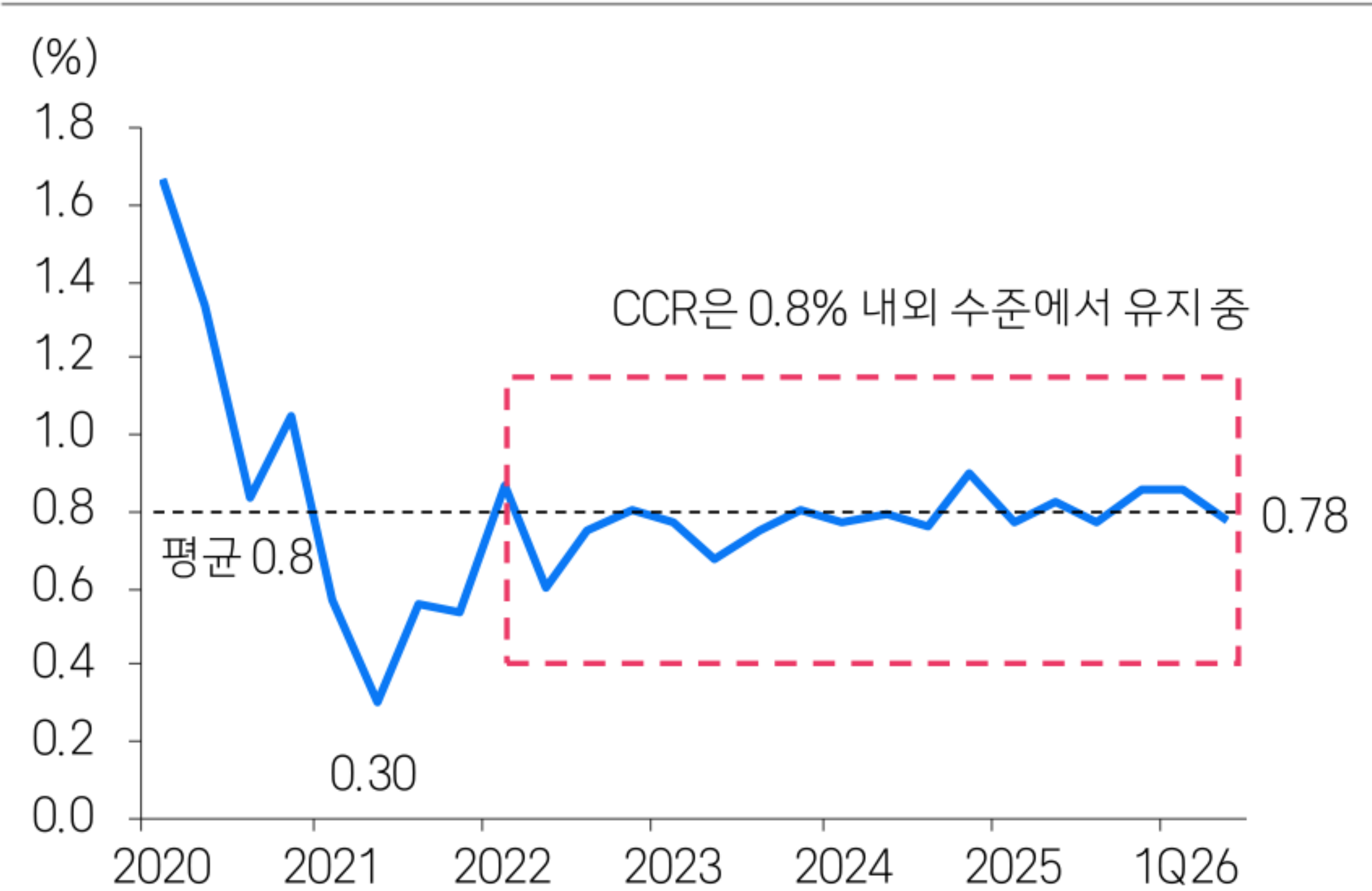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주요 은행 총당금 전입액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주요 은행 합산 기준 CCR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3. 자본비율 전분기와 유사 – 주주 환원 강화 기조 지속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1bp q-q)을 기록하였고, 이에 주주환원 강화 기조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 실제로 구체적인 주주환원 규모를 공표한 ING의 주주환원율은 131.8%를 기록.

이와 같은 은행들의 주주 환원 강화는 지속될 전망. 실제로 은행들은 26년 가이던스와 관련,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지속을 시사한 바 있는 가운데, 1)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목표 CET-1 비율을 상회하거나 상단에 위치함에 따라 여전히 충분한 주주환원 강화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2) 은행들의 ROE가 26년에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추가적인 주주환원 재원이 축적될 전망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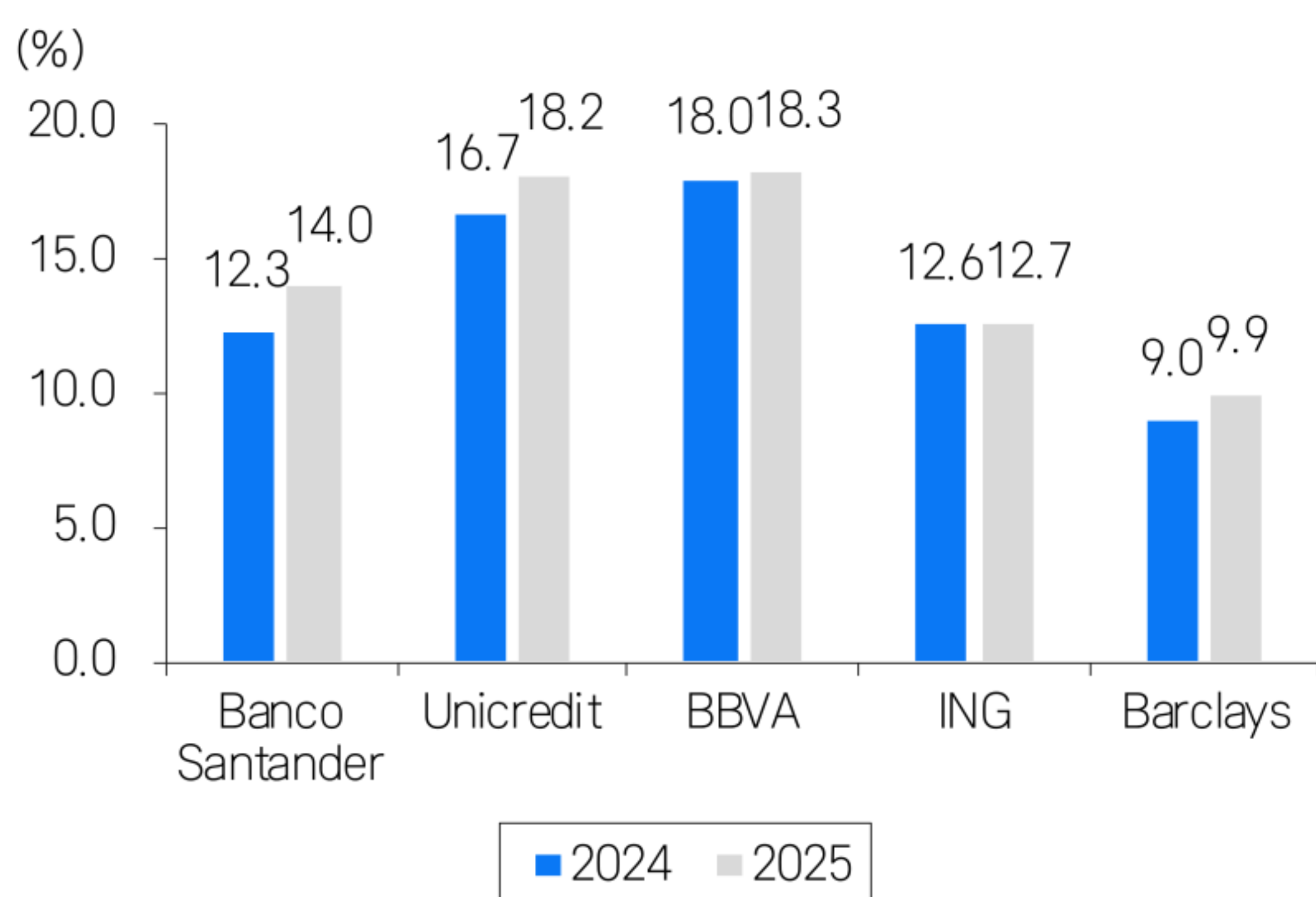
다만, 은행별 일부 온도차도 확인

이번 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일부 온도차도 확인 가능하였음. 주요 유럽 은행들은 초과 자본을 주주환원 이외에도 M&A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기 때문.

일례로, ING는 CET-1 비율 13%를 넘어서는 초과 자본과 관련해서 1) 수익성 있는 성장, 2) M&A, 3) 주주환원 순으로 자사주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전략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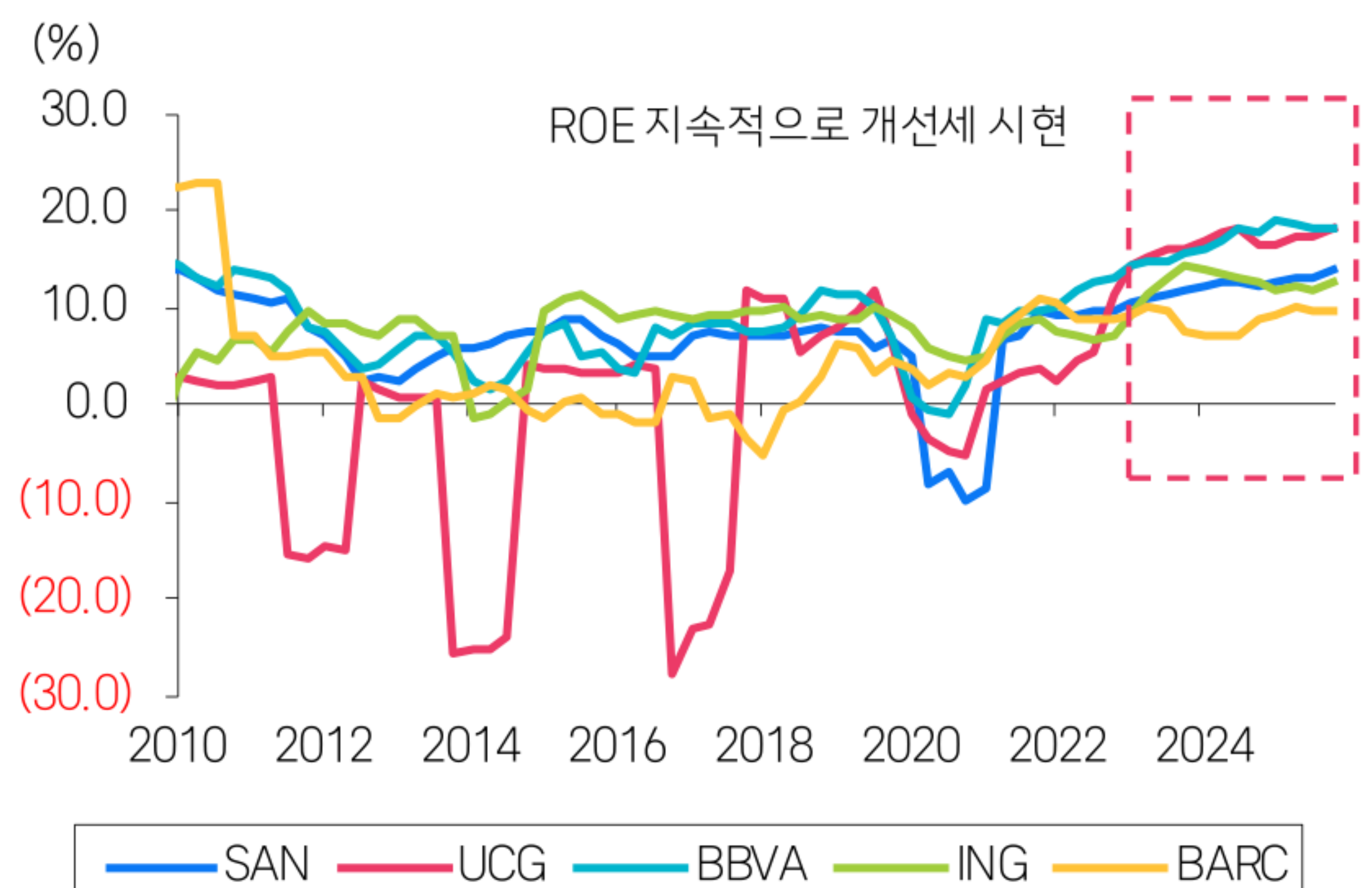
한편, Unicredit은 독일 코메르츠 뱅크 지분을 47.6% 확보한 가운데, 올해 말 연결로 인식하게 될 경우, 2025년 실적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던 47.5억 유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이는 코메르츠 뱅크 인수 시 CET-1 비율에 부담이 발생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완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결국 관건은 인수 승인 시점. 즉, 연내에 인수 승인이 완료될 경우, 1) 자사주 매입 취소는 단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하지만, 2) CET-1비율 방어 및 코메르츠 뱅크 인수에 따른 ROE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보다 크게 작용 가능. 참고로, 동사는 25년 기반 자사주 매입은 현재 중단한 상태이지만, 26~30년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주주환원율 80% (배당 50%, 자사주 30%) 방침은 재확인하였음.

유럽 주요 은행별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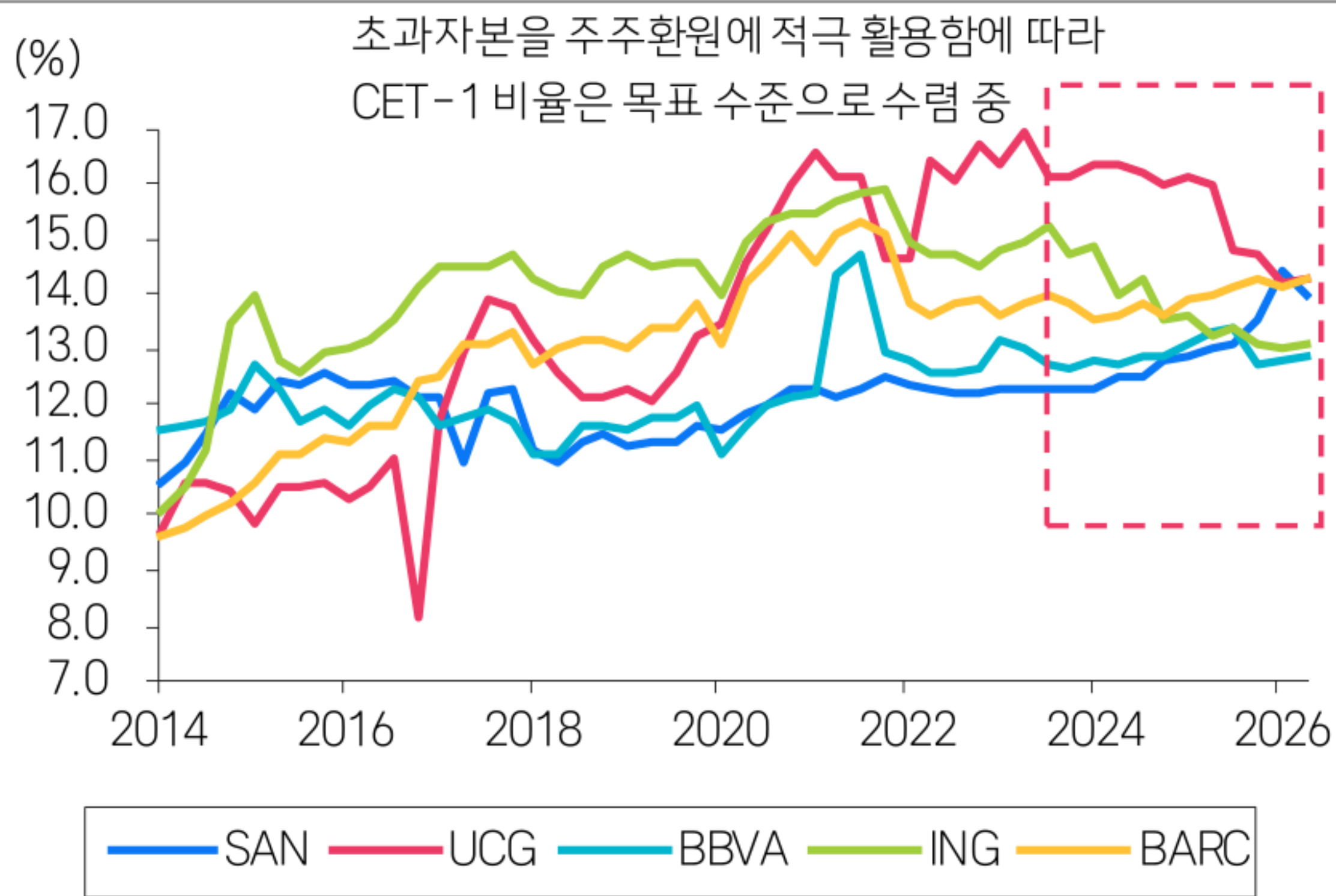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주요 은행별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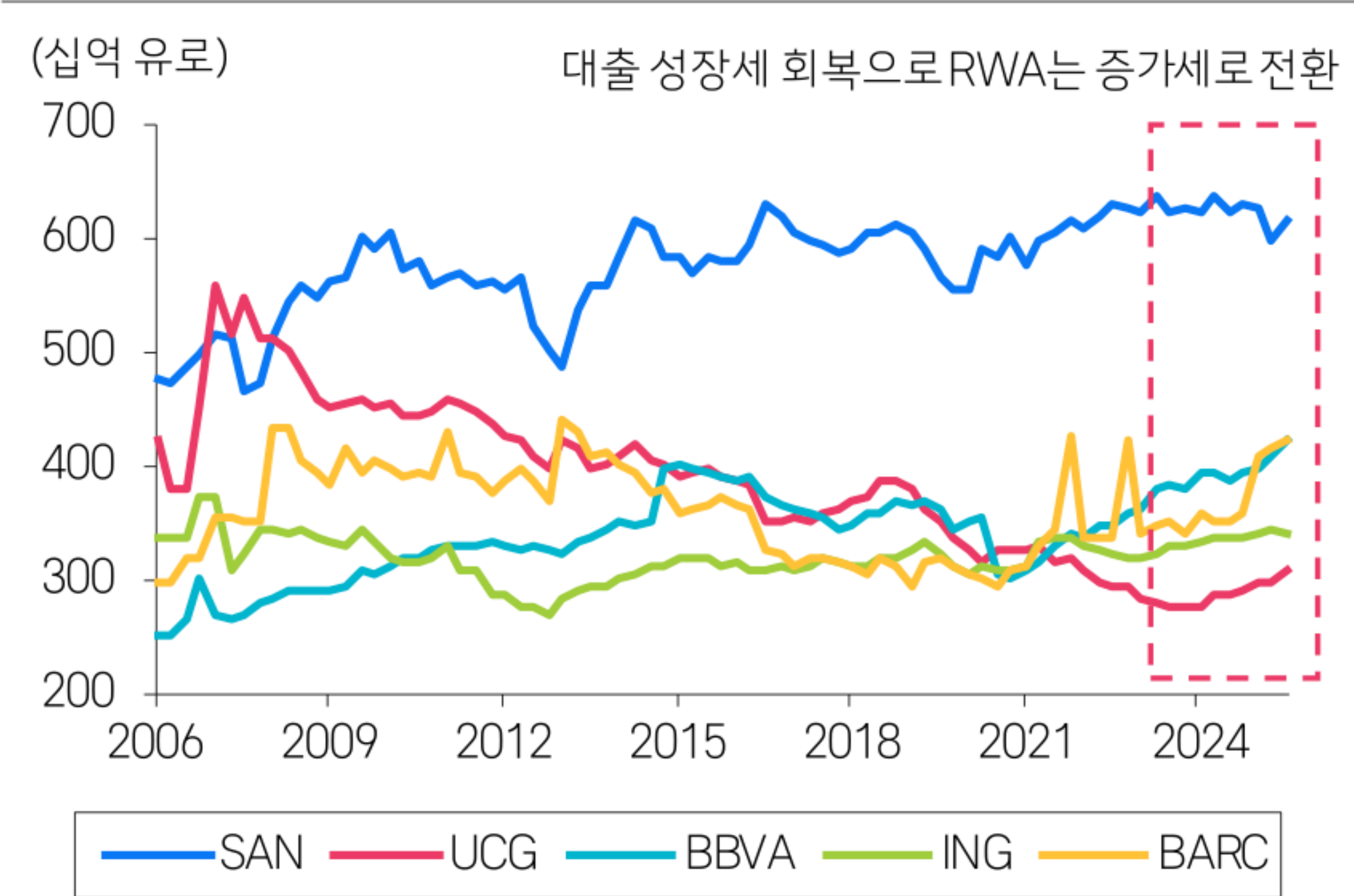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주요 은행별 CET-1 비율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주요 은행별 RWA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CET-1비율 현황 및 주주환원 관리 목표

	2Q26 CET-1 비율 (%)	CET-1 비율 관리 수준 (%)	Ordinary 주주환원 관리 목표
Banco Santander	14.0	12.0~13.0	기본 주주환원율 50% 목표 (주주환원 내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비중 각각 50%) 2026년까지 100억 유로 이상 주주환원
Unicredit	14.3	12.5~13.0	2026년 이후 주주환원율 80% 목표(자사주매입 성향 30% + 배당성향 50%)
BBVA	12.9	11.5~12.0	기본 주주환원율 40~50% 목표 M&A 무산 이후 신규 대규모 자사주매입 실행 준비 중
ING	13.1	13.0	기본 주주환원율 50% 목표
Barclays	14.3	13.0~14.0	향후 3년간 150억 파운드 이상 주주환원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주주환원율 추이 및 컨센서스

	2022	2023	2024	2025	2026E
Banco Santander	36.2	45.4	45.2	49.6	64.7
Unicredit	76.5	81.9	98.5	86.2	79.8
BBVA	82.7	50.1	40.2	51.3	86.2
ING	154.3	106.5	51.2	115.4	85.5
Barclays	44.8	47.0	47.1	47.9	71.3
합계	68.7	65.8	56.7	66.4	77.5

자료: 각 사, Bloomberg

은행별 DPS 추이

(유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E
Santander	0.03	0.08	0.10	0.14	0.17	0.23	0.29
Unicredit	0.12	0.54	0.99	1.78	2.40	3.15	3.78
BBVA	0.00	0.25	0.35	0.45	0.57	0.75	1.02
ING	0.12	0.89	0.56	1.11	1.06	1.09	1.29
Barclays	0.01	0.03	0.09	0.09	0.10	0.10	0.18
합계	0.28	1.80	2.08	3.57	4.30	5.31	6.55

자료: Bloomberg

은행별 배당수익률 추이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E
Santander	1.1	2.8	3.4	3.8	3.8	2.2	2.3
Unicredit	1.6	4.0	7.4	7.2	6.2	4.4	4.4
BBVA	0.0	4.8	6.2	5.4	6.0	3.7	4.1
ING	1.6	7.3	4.9	8.2	7.0	4.5	4.2
Barclays	0.7	1.6	4.8	5.2	3.1	1.8	2.9
합계	1.2	5.0	5.9	6.9	6.1	4.1	3.6

참고: 2026E는 8/4 증가 기준

자료: Bloomberg

26년 실적 개선 컨센서스 – 견조한 실적 개선세 지속 시사

26년 은행 실적 컨센서스는 견조한 성장을 시사. 부문별로는 1) 매출 성장률은 6.6%로 전년 1.4%대비가시적인 반등을 보일 전망이고, 2)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0.4%로 견조할 전망이며, 3) EPS 증가율 또한 11.3%로 견조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즉, 컨센서스는 올해 은행들의 매출 및 이익 증가 속도가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한 유통주식수 감소 효과로 EPS 증가율은 high single digit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임을 시사하는 가운데, 2Q 실적은 이러한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5대 은행 매출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유로)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Banco Santander	52,820.0	58,141.0	63,660.0	62,390.0	(2.0)	63,509.0	1.8
Unicredit	20,647.0	24,246.0	25,073.0	24,536.0	(2.1)	26,262.0	7.0
BBVA	24,744.0	29,541.0	35,482.0	36,931.0	4.1	41,853.0	13.3
ING	18,561.0	22,575.0	22,613.0	23,035.0	1.9	24,549.0	6.6
Barclays	29,299.7	29,167.7	31,650.2	34,023.0	7.5	36,717.0	7.9
합계	146,071.7	163,670.7	178,478.2	180,915.0	1.4	192,890.0	6.6

자료: Bloomberg

5대 은행 순이익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유로)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Banco Santander	9,605.0	11,076.0	12,574.0	14,101.0	12.1	15,679.0	11.2
Unicredit	6,458.0	9,506.0	9,719.0	10,915.0	12.3	11,424.0	4.7
BBVA	6,359.0	8,019.0	10,054.0	10,511.0	4.5	11,713.0	11.4
ING	3,675.0	7,286.0	6,392.0	6,327.0	(1.0)	6,998.0	10.6
Barclays	6,959.2	6,034.6	7,441.1	7,210.0	(3.1)	8,376.0	16.2
합계	33,056.2	41,921.6	46,180.1	49,064.0	6.2	54,190.0	10.4

자료: Bloomberg

5대 은행 EPS 추이 및 컨센서스

(유로)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Banco Santander	0.54	0.66	0.77	0.96	24.7	1.08	12.9
Unicredit	3.09	4.42	5.88	7.05	19.9	7.60	7.7
BBVA	1.00	1.29	1.67	1.76	5.4	2.10	19.1
ING	0.99	2.04	1.98	2.17	9.6	2.47	13.6
Barclays	0.36	0.32	0.42	0.51	21.4	0.61	20.2
합계	5.98	8.73	10.72	12.45	16.1	13.86	11.3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8월 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 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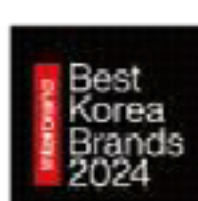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